

나주시, 한전공대 입지 용역 10월 착수

유치 선점 위해 9월 추경예산안에 사업비 반영 발빠른 행보
내년 4월까지 용역 진행...에너지 수도 건설 기본계획도 수립

나주 한전공대(KEPCO Tech) 건립과 관련, 입지후보지와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입지 선정을 놓고 '나주나', '광주나'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나주시는 더 나아가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에너지 수도 나주'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키로 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펼치

고 있다.

나주시는 한전공대 설립에 따른 입지후보지 조사 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오는 9월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전의 입지 선정과 별개로 학교 조성에 필요한 개발방법을 검토, 부지가 확정된 뒤 나주시가 담당해야 하는 행정·도시계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는 게 나주시 방침이다.

나주시는 용역을 통해 ▲한전공대 개발 규모 등 기본구상 뿐 아니라 ▲지역 내 입

지후보지 조사·분석 ▲입지후보지에 대한 인문·자연환경 분석을 통한 타당성 ▲한전공대 조성을 위한 개발방법 등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나주시는 관련 사업비 5000만원을 다음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의회 심의를 거친 뒤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는 최근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시즌 2)'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등을 열고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 정책기조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시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적극적 행보를 펼쳐왔다.

나주시는 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클러스터 조성·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스마트 에너지지대 조성을 연계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를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도 나서기로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나주시에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추진 당위성, 세부 진행 사업 등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지역순환 먹거리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진행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10월 개관을 앞둔 나빌레라 문화센터.

나주잠사, 문화예술공간 재탄생

'나빌레라 문화센터' 10월 18일 개관

갤러리·전시실·공연장 갖춰

하얀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뽑던 나주잠사(蠶絲)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한때 종업원이 1000명이 넘는 정도로 규모가 큰 근대 산업시설 중 한 곳으로, 1970년대 나일론의 등장으로 양잠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1978년 폐업했다.

특히 일제 강점기 강제수탈 등 지역민의 아픔이 서린 폐건물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주시는 폐업이나 용도가 사라져 방치된 건물을 문화예술 교육의 선순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문화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나주잠사의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에 나섰다.

'나빌레라 문화센터'라는 명칭은 공모를 통해 지은 것으로, 시인 조지훈의 '승무'에서 따왔다. 누에고치가 나비가 돼 완전한 모습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형상화한 말이다.

금남동(부지 5117㎡)에 위치한 나주잠사(건축면적 2187㎡)는 일제 강

점기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뽑았던 공장이다. 1910년 일본인 센가(千賀)가 설립한 회사로 한때 종업원이 1000명이 넘는 정도로 규모가 큰 근대 산업시설 중 한 곳으로, 1970년대 나일론의 등장으로 양잠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1978년 폐업했다.

나주시는 문화예술공간을 변화시키면서도 건조시설과 창고, 누에고치 보관소 등 1~4층 규모 건물 6동과 굴뚝 등은 옛 모습을 그대로 남겨 놓았다.

나주시는 모두 57억원을 들여 창고 등을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갤러리, 기획 전시실, 공연장, 음악 연습실, 공동장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공예실 등으로 리모델링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역 예술가를 위한 문화교류와 창작, 전시, 주민소통의 거점공간이면서 도시 재생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강인규(맨 오른쪽) 나주시장은 최근 개관을 앞둔 나빌레라 문화센터를 둘러보며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나주가 한전공대(KEPCO Tech) 건립과 관련, 입지후보지와 관련된 용역을 진행키로 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입지 선정을 놓고 '나주나', '광주나'의 기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한전이 위치한 혁신도시 전경.

4개 시·군 공동 글로벌 관광 거점 만들기 힘 모은다

나주·목포·무안·신안

연계협력 시범사업 대상 선정

생태·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교통 인프라 구축 합심

나주를 비롯, 목포·무안·신안이 영산강 유역의 고대문화권과 풍광이 뛰어난 다도해 섬, 갯벌 등을 활용한 내륙·해안 공동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이들 4개 지역은 섬·갯벌 등 천혜의 생태관광자원과 영산강 '실크로드'가 아우르진 역사·문화 관광 산업을 육성, 대중국 등 글로벌 관광 교류 거점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를 비롯, 목포·무안·신안 등 4개 자치단체가 국토부의 '2017년 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섬·갯벌 생태보고와 영산강 실크로드가 아우르진 '서남해안 생태·역사·문화 및 대중국 관광교류 거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용역비를 지원받아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나주시 등은 앞으로 ▲다도해권(무안·신안) ▲해양도시권(목포) ▲영산강변권(나주·무안) 등으로 나눠 생태·휴양, 역사문화, 해양레저 등의 테마 콘텐츠를 구체화시킨다는 구상이다.

다도해권의 경우 서도해(흑산·비금·도초), 신안 중·남부(자은·압태·팔금·안

좌, 하의·장산·신의), 신안 동·북부(압해·지도·중도·임자), 무안지구 등으로 개발 구상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섬별 생태·인문, 생활문화 등 고유가치를 활용, 새로운 섬문화 브랜드를 창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섬관광과 해양레저, 어촌체험 등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영산강변권 개발 구상으로는 나주지구와 무안지구로 특화,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나주의 경우 나주목 등 역사문화와 금성산 산림·휴양 자원에 음식물 결합한 관광 단지 조성, 반남·다시의 고대마한역사문화를 활용하면서 영산강변 생태·해양 관광을 연계한 개발계획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지구는 석정포구·주룡나무 등 영산강을 따라 열린 포구들을 복원, 강의 정취를 담아내고 강변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생태·낭만 로드를 만드는 방안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아울러 통합형 관광권역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철도, 크루즈·요트마리나, 무안공항과 흑산공항을 포함한 항공 접근성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모은다는 전략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국토부와 4개 시·군, 전남도 등이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4개 자치단체가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지우기자 dok2000@
나주=서충열기자 scy@
무안=임동현기자 jdh@
신안=이상선기자 stlee@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솔향기맑은터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09시 오픈! 22시 마감!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한우가격의 2/3

와규 갈비살 20,000원

와규 눈꽃살 25,0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불포화지방산(올리고산)이 대부분인 와규전문점
- ▶ 돼지갈비 이상 메뉴 주문시 찜질방 20% 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